



우리나라 최초 판매용 ‘발명’ 전문 월간지

우리나라 최초 판매용 ‘발명’ 전문 월간지 ‘월간 발명과 생활’ 창간호는 1991년 5월에 발행되었다. 그 이전에도 한국발명특허협회(현 한국발명진흥회)가 발행하는 ‘월간 발명특허’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기관의 사보성격을 띤 비매품이었다.

우리나라 최초의 가로수 보호 덮개 발명으로 크게 성공한 한국가로수보호주식회사(회장 박인호, 사장 최병섭 부부) 부설로 설립된 한국발명교육연구소가 발행한 이 월간지의 회장은 박인호, 발행인 겸 편집인은 최병섭 여사였다.

발행인 겸 편집인인 최병섭 여사는 창간사를 통해 창간 목적 및 편집 제작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. 간추려 옮겨 신는다.

“발명계의 오랜 숙원이던 월간지 「발명과 생활」이 신미년 새봄에 첫 선을 보입니다./ 새로이 탄생하는 「발명과 생활」은 과학기술이 국력의 척도요, 모태라는 세계 질서에 부응하여 그 창간의 깃발을 올렸습니다./ 「발명과 생활」은 전문 발명가를 위한 아카데미즘 보다는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.../ 고독한 발명의 길에 친근한 동반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어 발명계의 살아 있는 역사를 적어나갈 것을 천명합니다.”

이 월간지는 성공한 발명가 부부의 의욕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로 내용은 물론 질 면에서도 당시 최고로 평가받았다. 그러나 발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휴간되어 발명계를 안타깝게 했다. 창간호는 4*6배판 178쪽 전반 가량 올 컬러판이었고, 휴간되기까지 최고급 월간지로 발행되었다.

(‘발명특허 기네스’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. 많은 참여바랍니다. 편집자 주)

자료제공 :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,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